

경찰 공무원의 부패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s Perception on Police Officer's Corruption

김택(Kim, Taek)**

ABSTRACT

In the past, corruption in public offices was mostly a livelihood-related corruption scandal, with many lower-level officials implicated in corruption charges. In particular, police corruption is the most frequent occurrence of official corruption and continues to lead to public distrust and cynicism.

Among the theories of police corruption is the theory of 'rotten apples theory'. The rotten apples theory is that the entire police force is highly likely to become corrupt, as the apple box's flawed apple rots away from the recruitment process of police officers who are potentially corrupt in focusing on individual personality of police officers. In other words, the cause of corruption lies in a personal defect especially personality character, moral, ethical factors. And Other theory is systematic approach. It is a theory that the cause of corruption among police officers is not a personal defect but rather a systematic cause of organization. This is considered a standard of self-help and blind silence among police officers, and has been downgraded to a tacit practice within the organiz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public's perception of police corruption and tried to study it from a citizen's perspective, instead of from the corruption study of police officers who were involved in police corruption. This study was considered in the following ways: First, we discussed what causes citizens to recognize police corruption. Second, it was considered from a personal,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and cultural standpoint of police corruption. Third, we looked at what was the way to improve the cause.

Key words: Police Corruption, Cause of corruption, Revolution of Polic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s

* 이 논문은 중원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2017-003).

**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동국대 경찰학 박사)

I. 서론

1. 연구목적

문재인정부 들어 경찰의 권한이 점점 커질 경향이 높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방안이 논의됐고 국가정보원의 정보업무도 경찰이 담당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도 자치경찰권을 추진하고 있는 등 경찰개혁이 본격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오르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와 개혁은 경찰의 과학화와 전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간 경찰은 정권의 하수인역할에 충실하여 많은 파행과 과오를 자행하였고 국민의 공분과 비난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민주경찰의 기초를 다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전체 13만 경찰관들의 자질과 인성, 가치관 등이 변화되어야 하고 시대정신과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부패의 이론 중에 ‘썩은 사과 가설’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경찰관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데 부패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을 채용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조직에 흡수되어 마치 사과상자의 힘 있는 사과가 썩어 전체사과가 썩듯이 경찰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즉 부패발생 원인을 개인적 결함에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조정에서도 경찰관의 자질문제를 검찰이 지적한 바 있다. 즉, 검찰은 수사경찰의 자질을 들어 수사권분리를 반대하고 나왔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경찰관 채용의 전문화, 가치관이나 국가관 그리고 서비스정신이 투철한 경찰관을 선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경찰관 채용시험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과목을 신설하고 수학이나 과학 사회 같은 과목을 폐지하려고 한다. 경찰이 공권력을 수행할 시 인권을 중시하고 법질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헌법과목을 시험과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한다. 경찰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인간의 권리를 좀 더 생각하고 권력을 행사하라는 뜻이지만 시험과목 변경만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와 함께 경찰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행정법을 중시하지는 의견도 있다. 과거 군사정부에서 윤리관 국가관 함양을 위해 국민윤리과목을 공무원 시험의 필수과목으로 개편한 적이 있다. 가 몇 년 시행하다가 폐지됐고 한국사과목이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하는 등 시험과목의 부침도 여러 번 있었다. 이번 현 정부들어 인권중시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경찰관이 법을 모르면 안 된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조직폐거리 문제라는 측면에서 경찰대학을 개혁하겠다고 한다. 경찰부패중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보다는 조직의 체제적인 측면을 비리원인으로 보는 것이 ‘구조원인 가설’이다 이것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끼리끼리 알아서 도와주고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조직내부에서 묵시적 관행으로 내려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시민들의 경찰부패인식도를 분석하였는데 과거의 경찰부패 당사자인 경찰관의

부정부패 연구에서 벗어나 시민관점에서 연구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시민들의 경찰부패 인식원인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둘째, 경찰부패의 개인적 제도적 조직 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셋째,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2. 선행연구의 분석

남형수(2009)는 “경찰부패 인식도 연구”에서 경찰공무원의 부패인식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여 경찰부패 통제 시스템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실증적으로 경찰부패를 요인을 분석하고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부패의 직접적인 측정이전에 어떠한 것을 부패로 인지하는가라는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전략을 수립하였다고 본다. 다만 경찰관들의 경찰부패 인식도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 한계라고 본다.

이황우는(2009)는 경찰행태의 개인적 성향에 기반을 두었고 경찰공무원이 되기 전에 부정직한 사람이 경찰조직에 와서 경찰부패요인이 된다고 주장하며 로이 로버트그(1993)가 주장한 썸은 사과이론을 뒷받침했다. 또한 체계적 집단현상 등 조직문화적인 측면도 한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문재명(2014)은 경찰비리를 분석하고 부패방지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윤리적 측면 교육적 측면 조직 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문재명은 특히 이해충돌회피를 주장하여 제도적 방안을 강조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김택(2016)은 “경찰부패 인식도 연구”에서 부정부패 등을 상수항으로 정하여 표준오차를 비교하였다. 특히 금품수수의 경우 대가성과의 상관관계를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개인적, 조직 문화적, 법률 제도적 측면에서 시민들의 부패인식도를 연구하였다.

II. 경찰부패연구의 분석

1. 모형과 방법

(1) 모형

본 논문은 개인적면에서는 경찰탐욕 금품수수 충동성 등을 강조하였고, 경찰조직문화적면에서는 부패충동성, 금품수수를 상수항으로 정했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부패충동성,

금품수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경찰관의 부패인식과 경찰부패 분석틀로 정하였다. (그림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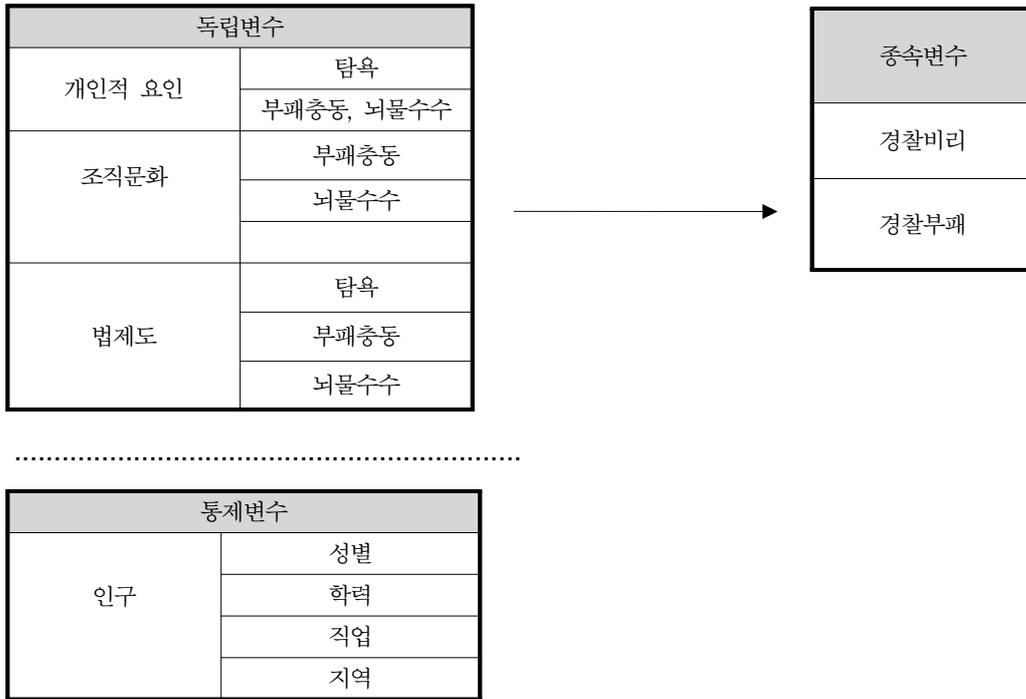


그림 2-1. 분석 틀

(2) 가설

이번 연구에서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부패인식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여 만들었다.

[가설 1] 개인적 측면에서 부패소지에 대한 경찰관의 뇌물충동이나 뇌물 수수의 차이는 무엇인가?

[가설 2] 조직문화적 측면에서 경찰관들의 부패 탐욕적 요인이 무엇인가?

[가설 3] 법제도적 측면에서 경찰관들의 뇌물이나 금품의 수뢰는 무엇인가?

2. 표본추출

본 논문은 시민을 상대로 경찰부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6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90여명의 설문을 수거하였다.

3. 분석방법

본문의 자료분석방법 논문의 문항지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는데 요인분석과 부패요인과 부패인식도의 신뢰도분석을 하려고 한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부패요인은 T-test(independent samples t-test)와 경찰관의 근무재직기간, 경찰 계급 간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 일원분석인 ANOVA(one-way anova)분석을 실시했다. 법제도적 측면 등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셋째,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분석을 이용하여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SPSS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Ⅲ.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남녀 분포는 다음과 같은데, 전체 296명의 설문조사 대상자 중에서 남자가 207명(69.9%)로 여자 89명(30.1%)으로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30세가 193명(65.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반면에, 70세 이상은 1명(0.3%)으로 분포를 보였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대학생이 186명(62.8%)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공무원은 2명(0.7%)으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대학생, 회사원, 상업, 무직, 농축산업, 공무원 순으로 분포를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 분포를 보면 고졸이 175명(59.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대졸이 88명(29.7%), 전문대졸 25명(8.4%), 대학원 이상 8명(2.7%)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137명(46.3%)으로 가장 높고 호남은 2명(0.7%)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나타냈다. 지역별 분포는 경기, 서울, 충청도순으로 분포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번 연구의 조사응답자는 남 대학생이 주로 차지했고 연령은 20-29세가 다수였다. 학력은 고졸이 대다수이고 지역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경찰 부패인식도에 대해서 응답하였다.

〈표 3-1〉 시민 응답자의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207	69.9
	여자	89	30.1
연령	20-30세	193	65.2
	30-40세	57	19.3
	40-50세	39	13.2
	60세 이후	6	2.0
	70세 이후	1	0.3
직업	무직	20	6.8
	대학생	186	62.8
	상업	29	9.8
	공무원	2	0.7
	회사원	56	18.9
	농축산업	3	1.0
학력	고졸	175	59.1
	전문대졸	25	8.4
	대졸	88	29.7
	대학원 이상	8	2.7
지역	서울	113	38.2
	경기	137	46.3
	강원	12	4.1
	충청도	27	9.1
	경상도	5	1.7
	전라도	2	0.7
합계		296	100.0

2. 연구가설 검증

1) 시민 통계학적 분석

(1) 부패의미 기준 설정

본 연구에서는 부패의미 기준으로서 경찰관의 개인적 탐욕이나 충동성과 금품수수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따라서 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탐욕이 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충동성과 금품수수는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탐욕($b=0.36$, $t=3.68$, $p<.01$)은 부패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충동성과 금품수수는 부패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패의미기준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0%이고, 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F=5.17$, $p<0.01$)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시민들은 경찰공무원 부패인식에 대해서 금전에 대한 개인적 탐욕이나 동료의 목인을 부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경찰관으로서 부패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설1-1은 채택된 반면에, 가설1-2, 가설1-3은 기각되었다.

〈표 3-2〉 시민의 부패의미기준의 부패인식 영향

가설	변수 (Variables)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 회귀계수 (Beta)	t값 (t)	유의도 (p)
	상수항	2.13	0.54		3.91	0.000***
가설1-1	탐욕	0.36	0.09	0.21	3.68	0.000***
가설1-2	충동성	-0.05	0.09	-0.03	-0.54	0.588
가설1-3	금품수수	0.05	0.08	0.03	0.61	0.541
설명력 (R ²)		0.050				
조정설명력 (Adj. R ²)		0.041				
사례수 (N)		296				
F값 (F)		5.174				
유의도 (p)		0.002***				

*** P<0.01, ** P<0.05, * P<0.10

2) 시민부패 요인

(1) 개인적 요인

시민을 대상으로 응답한 부패인식의 개인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윤리의식이 낮으면 경찰 부패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2-1-1을 설정하였고, “개인의 탐욕이 경찰부패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2-1-2를 설정하였다. 또한 “경찰부패범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때 경찰부패가 상당할 것이다.”라는 가설2-1-3을 설정하였다. “경찰 청렴교육을 여러 번 수강한 경우 경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가설2-1-4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가설2-1-1, 가설2-1-2, 가설2-1-3, 가설2-1-4를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번연구의 개인적 측면의 변수라고 볼 수 있는 윤리의식, 탐욕, 충동성, 청렴교육의 독립변수와, 부패인식의 종속변수를 분석하였다.

〈표 3-3〉 시민이 인식하는 개인적 요인에 대한 부패인식도

가설	변수 (Variables)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 회귀계수 (Beta)	t값 (t)	유의도 (p)
	상수항	2.02	0.58		3.46	0.001***
가설2-1-1	윤리의식	0.26	0.12	0.14	2.20	0.028**
가설2-2-2	탐욕	0.22	0.11	0.13	1.98	0.049**
가설2-1-3	충동성	-0.03	0.09	-0.02	-0.37	0.707
가설2-1-4	청렴교육	-0.11	0.05	-0.11	-2.09	0.037**
설명력 (R ²)		0.079				
조정설명력 (Adj. R ²)		0.066				
사례수 (N)		296				
F값 (F)		6.236				
유의도 (p)		0.000***				

*** P<0.01, ** P<0.05, * P<0.10

개인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윤리의식, 탐욕, 청렴교육이 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충동성은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윤리의식($b=0.26$, $t=2.20$, $p<.05$), 탐욕($b=0.22$, $t=1.98$, $p<.05$)은 부패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청렴교육은 부패인식에 유의한 부(-)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충동성은 부패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개인적인 측면의 변수가 부패인식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7.9%이다. 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F=6.23$, $p<0.01$)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택, 2016:172,2017)

연구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경찰공무원들이 청렴이나 윤리의식이 저하되면 경찰부패가 발생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 개인의 탐욕이 강하면 경찰부패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윤리교육과 청렴교육을 많이 받으면 경찰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리라 인식된다. 본 연구는 가설2-1-1, 가설2-1-2, 2-1-4는 받아들여지만 가설2-1-3은 기각되고 있다.

(2) 조직 문화적 요인

시민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와 부패인식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찰부패는 시민들이나 업자가 청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라는 가설2-2-1을 설정하였고, “동료의 부패나 뇌물수수에 관용적인 조직문화가 있기에 발생한다.”라는 가설2-2-2를 설정하였다. 또한 “경찰의 알선청탁문화와 봐주기 문화가 부패를 조장한다.”라는 가설2-2-3을 설정하였고, “경찰조직의 권위주의적이고 계층제 관료문화가 부패를 조장한다.”라는 가설2-2-4를 설정 하였다. 이 논문에서 가설2-2-1, 가설2-2-2, 가설2-2-3, 가설2-2-4를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직 문화적 측면의 변수로서 청탁, 상납, 알선, 관료제 등의 변수들이 설명변수로서 연구모형에 투입되었다. 종속 변수는 경찰부패인식을 실시하였다.

조직 문화적 측면이 경찰부패에 끼친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탁은 경찰부패인식도 적극적인 영향을 끼쳤고 상납은 경찰부패인식도 소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알선행위와 관료제 경찰부패인식도에 의미 있는 면을 끼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청탁($b=0.19$, $t=2.13$, $p<.05$)은 경찰부패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끼쳤고 알선은($b=-0.15$, $t=-2.37$, $p<.05$)를 보였고, 관료제는 $b=-0.16$, $t=-2.59$, $p<.05$) 경찰부패인식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끼쳤다. 본 연구의 조직 문화적 요인이 경찰부패인식도에 끼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6%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의($F=4.30$, $p<0.01$)한 면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경찰인허가 과정에서 민원들이 청탁 때문에 경찰부패가 발생

할 거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알선청탁문화와 봐주기 문화가 부패를 조장하는 것과 경찰조직의 권위주의적이고 계층제 관료문화가 부패를 조장하는 것이 반드시 부패인식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 가설2-2-1, 가설2-2-3, 가설2-2-4는 수락되었고 가설2-2-2는 채택되지 않았다.(김택2016:173)

〈표 3-4〉 시민이 보는 조직 문화적이 부패인식에 끼치는 측면

가설	변수 (Variables)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 회귀계수 (Beta)	t값 (t)	유의도 (p)
	상수항	3.90	0.44		8.84	0.000***
가설2-2-1	청탁	0.19	0.08	0.15	2.13	0.034**
가설2-2-2	상납	0.00	0.10	0.00	0.07	0.939
가설2-2-3	알선	-0.15	0.06	-0.13	-2.37	0.018**
가설2-2-4	관료제	-0.16	0.06	-0.16	-2.59	0.010**
설명력 (R ²)		0.056				
조정설명력 (Adj. R ²)		0.043				
사례수 (N)		296				
F값 (F)		4.304				
유의도 (p)		0.002***				

*** P<0.01, ** P<0.05, * P<0.10

(3) 법제도적 요인

법제도적 변수와 경찰부패인식도와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이번 연구에서 “경찰부패의 통제를 통한 징계를 인식하는 경찰관일수록 부패가능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가설2-3-1을 설정하였고, “경찰관은 재량행위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찰관일수록 부패위험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2-3-2를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경찰부패에 대한 징계처벌이 미약

하다고 인식하는 경찰관일수록 부패가능성이 적을 것이다.”라는 가설2-3-3을 설정하였고, “경찰인사가 공정하지 않고, 경찰보수가 적으면 부패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2-3-4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가설2-3-1, 가설2-3-2, 가설2-3-3, 가설2-3-3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결과 분석은 법제도적 측면의 변수로서 부패 징계통제가능성, 재량행위, 징계처벌수위, 인사공정성 등의 변수로 분석되었다. 경찰부패인식도를 부패종속변수로 분석하였다.

〈표 3-5〉 제도적 측면이 경찰부패인식도에 끼치는 영향

가설	변수 (Variables)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 회귀계수 (Beta)	t값 (t)	유의도 (p)
	상수항	3.48	0.50		6.86	0.000***
가설2-3-1	부패징계통제	0.00	0.09	0.00	0.08	0.931
가설2-3-2	재량행위	0.07	0.08	0.05	0.92	0.357
가설2-3-3	징계처벌	-0.14	0.10	-0.08	-1.42	0.156
가설2-3-4	인사공정성	0.07	0.14	0.03	0.56	0.576
설명력 (R ²)		0.010				
조정설명력 (Adj. R ²)		-0.004				
사례수 (N)		296				
F값 (F)		0.708				
유의도 (p)		0.587				

*** P<0.01, ** P<0.05, * P<0.10

제도적 측면이 경찰부패인식도 끼친 영향을 실증하였는데 부패 징계 통제가능성, 재량행위, 징계처벌수위, 인사공정성 변수가 경찰부패인식도와 관련성이 하위로 나타났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부패 징계통제가능성, 재량행위, 징계처벌수위, 인사공정성 등의 변수가 경찰

부패인식도에 파급효과를 기치지 못했다. 이번 연구는 결과에서 제도적 측면의 변수가 경찰 부패인식도 끼치는 영향은 통계적학적인 측면에서는 정의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실증분석은 시민들은 생각하는 경찰관의 제도적 변수와 경찰부패인식도와의 관련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2-3-1, 가설2-3-2, 가설2-3-3, 가설2-3-4는 채택되지 않았다.(김택, 2017 전계논문)

3) 인구학적 특성

시민의 경찰부패인식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민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이 경찰부패요인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가설3을 설정하였고 가설3을 분석하기 위해서 “남. 여에 따라 경찰부패요인에 의미를 끼친다.” 라는 가설3-1, “나이에 의해 경찰부패요인에 영향을 끼친다.” 라는 가설3-2, “경찰관 계급이 경찰 부패요인에 영향을 끼친다.” 라는 가설3-3, “경찰재직경력에 따라 경찰부패요인에 영향을 끼친다.” 라는 가설3-4, “경찰학벌에 따라 경찰부패요인에 영향을 끼친다.” 라는 가설3-5를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시민들이 대상이고 가설3-1, 가설3-2, 가설3-3, 가설3-4, 가설3-5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연구결과이다. 경찰부패인식도에 관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에서 남녀 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나이, 직업, 사는 지역 등은 경찰부패인식도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경찰부패인식에 대해서 남녀 성별 중 남자(M=3.79, SD=1.22)가 여자(M=3.47, SD=1.28)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나이, 직업, 사는 지역, 학벌은 관련성이 없었다. 이번 연구 분석은 시민들이 경찰 부패인식에 관하여 남녀 성별은 여타 인구학적 변수에 비해 경찰 부패인식도 매우 가까운 관련성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3-1은 수락되었고 가설3-2, 가설3-3, 가설3-4는 채택되지 않았다.(김택, 2017, 2018)

〈표 3-6〉 부패인식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변수 간 편차

가설	구분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t/F	p
가설3-1	남자	207	3.79	1.22	2.03	0.043**
	여자	89	3.47	1.28		
가설3-2	20-30세	193	3.82	1.24	2.30	0.058*
	30-40세	57	3.59	1.27		
	40-50세	39	3.20	1.21		
	60세 이후	6	3.88	0.62		
	70세 이후	1	3.00			

가설3-3	직업	무직	20	3.46	1.12	2.11	0.063*
		대학생	186	3.83	1.27		
		상업	29	3.17	1.18		
		공무원	2	4.00	1.41		
		회사원	56	3.54	1.19		
		농축산업	3	4.55	0.50		
가설3-4	지역	서울	113	3.49	1.26	2.05	0.071*
		경기	137	3.82	1.25		
		강원	12	3.36	1.16		
		충청도	27	3.79	1.10		
		경상도	5	4.60	0.89		
		전라도	2	5.00	0.00		
가설3-5	학력	고졸	175	3.77	1.32	1.63	0.182
		전문대졸	25	3.24	1.34		
		대졸	88	3.71	1.04		
		대학원 이상	8	3.29	1.20		

* P<0.01, ** P<0.05, * P<0.10

IV.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첫 번째는 시민의 경우 경찰부패인식도에 관하여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 남여성별 간의 유의한 차이를 끼쳤다. 그러나 나이, 직업, 사는 지역 등은 경찰부패인식도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했다. 경찰부패인식도에 관하여 남여성별 중에서 남자(M=3.79, SD=1.22)가 여자(M=3.47, SD=1.28)보다 높은 평균값의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나이, 직업, 사는 지역, 학별은 의미 있는 요소가 발견돼 않았다.

두 번째는 시민의 경찰부패인식도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는데 탐욕이 경찰부패인식에 적극적이었고 충동성과 금품수수는 경찰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관련성을 끼치지 못하였다.

세 번째는 시민의 경우 개인적인 변수가 경찰부패인식도에 끼친 측면을 실증 분석한 바

경찰윤리, 탐욕, 청렴윤리교육이 경찰부패인식에 긍정적인 그쳤다. 그러나 충동성은 경찰부패인식도에 의미 있는 관련성을 가져오지 못했다.

네 번째는 시민의 경우 조직문화의 변수가 경찰부패인식도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청탁은 경찰부패인식도 정의 유의미성을 나타냈고 상납은 경찰부패인식도에 네거티브한 측면을 가져왔다. 그리고 알선과 관료제적 특성문화는 경찰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오지 못했다.

다섯 번째는 제도적 변수가 경찰부패인식도에 끼친 측면을 실증 분석하였는데 부패징계통제, 재량행위, 징계처벌수위, 인사공정성은 경찰부패인식도와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본다.

2. 시사점

시민들은 경찰공무원 부패인식에 대해서 금전에 대한 개인적 탐욕이나 동료의 묵인을 부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경찰관으로서 부패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리의식이 낮으면 경찰관 부패에 영향을 미치며, 경찰관 개개인의 부패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 경우 경찰공무원부패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민들은 경찰공무원 부패인식에 대해서 윤리의식이 낮으면 경찰관 부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 개인의 탐욕이 높으면 경찰공무원부패가 많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경찰 윤리교육이나 청렴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민들은 경찰공무원의 법제도적 요인과 부패인식 간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 나이, 학별은 여타 인구통계학적 요소에 비해 경찰부패인식도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경찰 부패인식도에 관하여 인구학적 요소에서 남녀 간은 여타 인구사회학적 요소에 비해서 경찰부패인식도에 상당히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택, 2017)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국민권익위원회(2019), 「청렴정책 자료」
- 경찰청(2012), 경찰채신위원회, 「경찰채신권고안」
- 김상운(2012), “경찰의 부패실태와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제17권 제3호:93-112, 한국부패학회
- 김 태(2018), “경찰부패 인식도 연구:부패충동, 탐욕, 금품수수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제23권 제3호,159-182쪽, 한국부패학회
- 김 태(2016), “경찰공무원 부패의 시민인식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학박사 학위논문, 2016, 2월
- 김 태(2017), 경찰학의 이해, 『박영사』
- 남형수(2009), “경찰공무원의 부패인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박사학위논문, 2009
- 문재명(2014), “경찰부패방지를 위한 이해충동회피방안”, 한세대 경찰학박사논문 2014.2:1-3
- 조철욱(2012), 『경찰윤리학』, 대영문화사
- 이황우(2009), 『경찰학』, 법문사
- 허경미(2016), 『경찰학개론』, 박영사
- 허경미(2007), “정치적 관점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전략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호

2. 외국문헌

- Roy R. Roberg and Jack Kuykendall(1993), *Police and Society*, Belmont, california:Wadworth Publishing, pp 195-196

투고일자 : 2019. 02. 28

수정일자 : 2019. 03. 28

게재일자 : 2019. 03. 31

<국문초록>

경찰 공무원의 부패인식에 관한 연구

김택

과거 공직부패는 생계형비리가 대부분이었고 하위직공직자들이 부패혐의에 많이 연루됐다. 특히 경찰부패는 공직부패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지금도 국민들의 불신과 냉소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부패의 이론 중에 '썩은 사과 가설'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경찰관 개개인의 윤리와 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부패 가능성이 있는 경찰관을 채용단계에서 도덕성을 걸러내지 못하고 조직에 흡수되어 마치 사과상자의 흠있는 사과가 썩어 전체사과를 썩게 만들듯이 경찰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심하다는 것이다. 즉 부패발생 원인을 개인적 결함에 두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경찰부패중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보다는 조직의 체제적인 측면을 비리원인으로 보는 것이 '구조원인 가설'이다 이것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끼리끼리 알아서 도와주고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조직 내부에서 묵시적 관행으로 내려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개인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경찰부패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시민들의 경찰부패인식을 분석하였는데 과거의 경찰부패 당사자인 경찰관의 부정부패 연구에서 벗어나 시민관점에서 연구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시민들의 경찰부패 인식원인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둘째, 경찰부패의 개인적 제도적 조직 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셋째, 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주제어: 경찰부패, 부패원인, 인식도, 경찰개혁, 독립변수, 종속변수